

세계의 정상을 유지하는 미국치과의학 (U.S. Dentistry Maintaining World Crest)



박 기 철

인디애나대학교 치과대학
공중보건치과연구소장
예방치과학 및 사회치과학 교수
E-mail: kichuelpark@mindspring.com



2000년 1월10일자로 발간된 ADA News 31권 1호에서는 미국에서는 Y2K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기사를 표제 기사로 다루었다. 미국의 국방성과 직결시켜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구강건강진료와 관련된 건강보험이 달라진다는 기사와 새 천년을 맞이하는 ADA의 근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Mascola ADA 신임회장은 예년과는 달리 한자리에서 모든 임원들과 모임을 갖고 ADA가 금년에 해야 할 일들과 서로의 관심사와 해결할 문제점들에 대하여 공개 토론했다고 보고했다. 금년도 미국 의회에서 첫 번째로 다루게 될 환자보호법안에 대하여 모든 ADA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ADA회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하원을

통과한 Norwood 환자보호법과 상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자 보호법안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를 회원들에게 주시킴으로써 모든 ADA회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표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과학소식으로는 PAX9부위의 유전자 변형이 치아결손과 직결된다는 Baylor 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요약했다. 또한 피우던 담배를 끊게 할 수 있는 예방주사약을 Minneapolis 중앙의료원의 Paul Pentel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팀이 개발했다는 내용과 미국에서 World Wide Web을 사용하는 일반의사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미국 각 지역 치과의사회와 관계된 내용으로는 Vermont 주 치과의사회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수은의 환경오염 예방사업이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실천에 옮겨져 Vermont 주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Nebraska 주의 치과위생사들의 소송내용에 대하여 법원에서 패소판정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Washington 주의 치과의사회는 Washington주 전역의 음용수 불소화를 위하여 Yakima 지역을 시점으로 구강보건법제정을 통하여 모든 주민들이 불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를 다루었다.

미국에서는 2월이 어린이 구강건강증진의 달로 마련되어 있다.

금년에는 “건강한 미소는 이 세계로부터! (Healthy Smiles Are Out of This World!)” 라는 구호를 가지고 시작된다. 51회의 연륜을 가지고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서 ADA는 2,500개의 행사계획과 350,000개의 포스터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주시시켜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주종사 두들리(Dudley)를 금년도 행사의 마스코트로 등장시켰다.

2월1일부터 시작되어 한달 동안 진행되는 어린이 구강건강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Baltimore의 Samuel D. Harris 박사 기념 국립치과박물관에서는 6시간에 걸쳐 “엄청난 치아 얘기(Terrific Tooth Tales)”라는 개관행사를 2월5일부터 실시했다.

교육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New York 대학교 치과대학 출신으로 ADA 회장이 된 Mascola씨를 위하여 New York 대학 치과대학 출신들이 마련한 Mascola 장학기금이 ADA에 마련되었다는 기사를 다루었다. New York 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Michael C. Alfano 박사와 New York County 치과외사회 회장 Elliot Moskowitz씨와의 100,000불의 장학기금을 마련한 경위와 New York 대학교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미국치과대학학생회(ASDA; American Student Dental Association)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Mascola 기념 장학사업은 장래의 ADA의 지도자를 교육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ADA 건강재단(Health Foundation)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50,000불 내지 135,000불의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구 분야는 “치과치료실의 Nitrous Oxide Level”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세균의 저항력과 치과외과학” 및 “치과치료와 전신질환”이며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연구계획서를 마련하여 2월1일까지 ADA에 신청하면 3월 24일에 선정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ADA는 앞날의 치과외과학계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직업을 강화하고 있다. ADA News는 “출발하다(Starting Out)”라는 제목을 걸고 지난해 Hawaii에서 ADA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미국의 각 지역의 치과대학 재학생들과 이들의 현명하고 성실한 지도교수(mentor)들의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고 미국치과대학생 연합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치과대학 재학생들에게 졸업 후 자기들이 속해있는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특수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ADA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 “피자와 정치(Pizza and Politics)”라는 제목으로 ADA의 대정부업무 담당 위원회가 미국의 36개 치과대학을 방문하여 치과의사들이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ADA는 “총명한 시작 프로그램 (Smart Start Program)”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치과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ADA의 치과 개원 특수위원회가 “학생 채무 세미나 (Student Indebtedness Seminar)”를 마련하여 치과대학 재학 중에 진 빚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ADA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공 프로그램 (Success Program)”은 치과대학 3학년 학생들과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치과의료의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의 치과 개원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 (Starting Your Dental Practice: An Ethical Perspectives)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ADA는 “전환 프로그램 (Transition Program)”을 마련하여 주로 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치과진료를 위한 병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ADA가 마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2010년까지 성취해야 할 미국의 건강 목표

1월25일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는 폭설로 거의 모든 정부기관의 업무가 마비 상태였다. 그러나 계획했던 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인 Donnalala 여사는 2010까지 이룩해야 되는 미국의 건강목표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룩해야 할 목표를 공개하면서 “구강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구강과 두개안면의 이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의정국장인 David Satcher 박사는 2010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성취해야 할 목표는 28개로 구분된 467개의 건강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고 이

중에서 구강건강과 직결된 사업이 17개 정도라고 했다. 주로 구강과 두개안면 질환과 손상의 예방과 관리를 비롯하여 구강건강진료의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구강건강과 직결된 내용은 “구강건강에 관한 의정백서 (Surgeon General’s Report on Oral Health)”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Satcher 의정국장은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구강건강의 의정백서(Surgeon General’s Report on Oral Health)”를 발표하면서 2010년까지 성취해야 할 구강건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0까지 성취해야 할 미국의 건강목표는 비만증, 담배사용, 전신건강을 비롯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건강진료 수혜 증진방안에 관한 내용들이다. 17개 항목에 달하는 구강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구강 및 인후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하고, 15세 연령층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6세부터 8세에 달하는 아동들의 치아우식증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구강건강을 적극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상 치과의학의 새로운 선구자

ADA News 31권 제 2호는 지난 1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미국치과의학연구소 (NIDCR)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국립보건원 캠퍼스가 아닌 Michigan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 “임상치과의학의 새로운 선구자”라는 제목의 workshop 내용을 표제기사로 다루었다. NIDCR 소장인 Harold Slavkin 박사는 현대 치과의학의 과학적인 혁명을 가져온 음용수의 불소화가 Michigan 주의 Grand Rapids에서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biotechnology century를 예견하였으며 Michigan 치과대학의 치주, 예방 및 노인치과과장인 Martha Somerman 교수는 조직의 재생, 인공으로 합성한 골(bone) 조직 분말을 이

용하여 상실된 구강조직을 재생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Michigan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Stephan Eklund 부교수는 인구조성의 변동에 따라 필요한 구강건강진료의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였으며 Michigan 대학교 치과대학의 생체 재료학 주임인 Christian Stohler 교수는 구강질병과 관련된 통증 해소를 위한 최근의 연구내용을 통하여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발생기전과 치료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증해소를 위한 새로운 획기적인 연구가 치과의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구강진료비용 5.3% 증가

미국 건강진료 재정 관리국(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은 1998년에 미국인들은 구강건강진료를 위하여 거의 54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1월 10일 발표하였다. 미국인들이 전체 의료비로 1.1조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구강건강진료비용은 1997년에는 511억 달러였는데 1998년에는 5.3%가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진료비의 96%가 개인치과의를사를 통한 진료비용이며 그중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는 50%정도이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불되는 비용이 나머지 50%정도라고 했고 중앙정부에서 국민자들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강건강진료비가 23억 달러로서 전체 진료비의 약 4%에 해당된다.

치과의학을 위한 청사진

ADA는 치과의사인 Leslie W. Seldin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치과의학의 장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5인 특별위원회는 ADA의 Richard F. Mascola 신임회장이 대의위원회를 통하여 위임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임명한 것이다. ADA의 이사인 D. Gregory Chadwick 과 Howard B. Fine, 그리고 치과의학 교육분야에서 Michael C.

Alfano 와 Kenneth L. Kalkwarf 로 구성되었다. 5인 특별위원회는 ADA의 연구/과학 특별위원회와 치과전문과학 정기간행물의 주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임상 치과진료 및 관리, 치과의학 교육, 치과의학 연구, 치과진료의 재정지원과 혜택, 치과면허증 발급과 법적인 절차 와 국제적인 치과의학분야와의 연계 사항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2001년 10월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NIDCR 진료 수혜 방안 모색

미국의 국립 치과과학연구소(NIDCR)는 1월31일부터 7개 도시에서 구강건강진료의 경제적, 사회적 및 다른 격차(disparity)를 감소시키는 방안 에 대한 연구로 workshop를 한다고 발표했다. 2000년 1월 4일 NIDCR은 7백5십만 불에 달하는 연구과제를 발표하면서 구강진료의 혜택을 미국 인들에게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고 했다. “구강건강 격차를 감소 시키는 중앙연구소 (CRROHD: Centers for Research to Reduce Oral Health Disparity)” 라는 제목을 부친 이 연구를 목적으로 치과대학 과 각 주와 특정지역 및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긴밀한 토론을 거친 실용적인 연구과제를 응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NIDCR은 일년에 1백50만 백만 불씩 7년 동안 지불되는 이러한 연구소를 5곳에 마련할 예정이다.

직접보상에 관한 기사와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물의세균감염 여부에 대하여 “20/20”에서 취급

ADA News 31권 제 3호는 직접 보상(DR: direct reimbursement)에 대한 회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ADA는 진료실의 환경조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미국 의회에서의 심의를 지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 및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에 대한 내용이 미국의 ABC 인기 프로그램인 “20/20”에 방영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표제기사로 다루었다.

HIV는 1930대에도 존재했다.

AIDS의 원인이 되는 virus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존재하던 virus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Chicago의 Northwestern 대학교, Birmingham의 Alabama 대학교 및 New Mexico의 Los Alamos 국립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HIV는 1930년경에 서부 Africa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제 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1959년에 채취하여 보관 해 두었던 혈청에서 HIV를 확인한 것이었다. 1월31일자 Chicago Tribune지는 chimpanzee들 에서 유래된 virus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퍼져 전세계적으로 1천6백만의 고귀한 인명을 빼앗아갔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려고 한다고 보고 했다. 기근과 영양 실조로 고생하던 Africa 사람들이 HIV에 감염된 동물을 식품으로 사용하여 virus가 사람에게 감염되었다고 Beatrice Hahn 박사는 보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가입절차를 간소화

미국의 중요한 여러 건강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소속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2년 전에 미국 정부가 CHIP을 위하여 240만 달러를 예산에 책정한 이후 1백30만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CHIP에 가입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기대했던 수 보다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ADA를 비롯하여 미국소아치과외과학회는 CHIP 가입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California 주 증빙서류에 의한 면허증 발급을 불허

2000년 1월 14일 California 치과의사면허시험 특별위원회는 증빙서류에 의한 면허증 발급제도를 표결에 부친 결과 6대 4로 부결시켰다. 특별위

원회의 위원장인 Roger B. Simonian 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주 의회를 통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지 않는 한 1월14일의 투표결과에 따라 증거서류를 통한 면허증 발급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 증거서류 검사를 통한 면허증 발급과정은 다른 주에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동안 치과개원의사로 진료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임상시험을 치르지 않고 치과의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ADA의 치과교육 및 면허증 심의특별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의 53개 주중에서 35개 주에서 증거서류에 의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ADA는 이러한 제도를 후원하고 있다. 주법에 따라 증거서류에 의하여 관련된 부서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 California주의 경우, 증거서류에 의한 면허증 발급과정을 변경하려면 주법을 바꿔야 할 지도 모른다. 주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이번 특별심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ADA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부서를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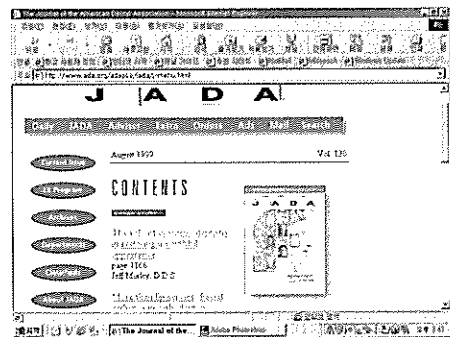
ADA는 시대의 조류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통합했다. ADA 출판회사, ADA 재정 업무회사, ADA 전자 상공회사를 1999년 12월31일자로 통합하였다. 통합된 새로운 부서의 명칭은 2월 11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합된 부서는 특수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관리책임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를 선정할 것이라고 ADA의 전체 관리책임자인 John S. Zapp 씨는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ADA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999년에 실시한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통합과정을 통하여 ADA가 보다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수익자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2001년도 예산, 1조8천360억 달러

미국의 Clinton 행정부는 2000년 2월 7일 대통

령으로서 잔여임기동안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1조8천360억 달러에 달하는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예산안 중에는 지난해 미국치과의사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아 하원을 통과한 환자보호법의 시행세칙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안 중에는 (1) 국립보건연구소의 예산증액이 1조 달러인데 이중에 1천4백만 달러를 국립치과연구소의 예산증액으로 책정하였고, (2) HIV/AIDS 환자들의 무 보상 구강건강진료를 위한 병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보조를 목표로 1 백만 달러를 증액하였고, (3) 행정부가 구상하고있는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75만 달러를 책정하였고, (4) 미국 식품약정국이 담배사용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담배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담배판매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3) Internet을 통한 부정 약품판매를 FDA가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천만 달러를 예산에 책정하고 있다. 2001년도 예산 중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미국의 다양한 인종간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건강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 A D A



143쪽에 달하는 JADA 2000년도 2월호는 안면근육의 통증과 구강안면의 통증해소를 위한 국소치료 및 이갈이

(bruxism)의 치료법에 관한 내용들을 표제로 다루고 있다. JADA 주간 Lawrence H. Meskin 교수는 개인의 존재 의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상을 분석하면서 치과의료에서 개인의 인간상을 다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였다. 연구논문으로는 Cuspal-coverage Amalgam 수복물의 실패원인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결과와 Dentin Bonding Strength에 대한 Dental Unit Waterline Antimicrobial Agent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L. Jackson Brown 박사는 유치와 영구치에 발생한 전체 치아우식증의 추세를 역학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기 칼럼에서 Gordon J. Christensen 박사는 이같이 환자들을 임상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Harold C. Slavkin 박사는 질병들이 어떻게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하며 이러한 신비로움을 알아내기 위해서 분자유전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진료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법학박사인 Sidney Rocke씨는 사기행위를 하는 건강진료 전문가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Jeffrey M. Goldstein 씨는 치과개원의사들이 진료실의 운영경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ADA의 고문 변호사인 Peter M. Sfikas 박사는 최근 Illinois 주 고등법원에서 EMO가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의사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을 수도 있는 판결내용을 소개하였다.

마스크 뒤로 다정한 미소를

전적으로 개인적(Strictly Personal이라는 제목을 걸고 전산망을 통하여 개인의 존재가 무시되고 감정과 육성이 담기지 않은 무언의 의사소통은 인간의 존재를 파경에 몰아 넣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Meskin 교수는 다루고 있다. Meskin 교수는 전산망의 중요성과 컴퓨터를 활용한 치과의학의 발전과 기계혁명의 위력을 어느 누구보다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계문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간의 각박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과는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다. 걸려오는 전화만 해도 60% 정도가 자동 응답기를 통해

서 처리되고 은행잔고나 월부로 치르는 자동차 값이나 집 값, 전기세 등들이 말 한마디 없이 전산망을 통해서 처리되고 전화를 걸때에도 이미 녹음된 메뉴에 따라 숫자만을 눌러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극장표도 사들이며 비행기 속의 좌석도 결정되고 베스트 셀러인 책도 사람과 한마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전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이 컴퓨터에 나타난 스크린을 분석해서 내가 돈을 쓰는 버릇을 분석해서 나의 심경을 흔들어 놓는 광고만을 선택해서 나를 향해 집중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불장 다 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상황이 치과의학에도 일어나고 있다. 모든 진료과정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되어가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가운(lab coat)을 입고, 마스크에 안경과 보호용 모자를 쓰고 고무장갑을 낀 채 환자들을 다루고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해당된 환자가 필요한 진료 및 관리방안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서 전달된다. 진료에 효율성은 보장되나 인간미가 전혀 없다. 치과진료는 개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가운 속에 치과의사가 있고 방어용 안경 뒤에 치과의사 자신의 고유한 미소와 입을 가린 마스크 뒤에 다정한 미소가 나타날 때 환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원한 인간관계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응급환자는 응급 처치를 해야 한다. 응급환자에게 지금 너무 바빠서 치료할 수 없으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미리 녹음해 놓은 자동 응답기가 대답할 경우 응급환자의 심정은 어떨까? 자동응답기를 당장에 치워버리고 모든 진료요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cell phone을 마련해서 환자들과 직접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개인적인 건강문제를 만족하게 해결해주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면 근육통: 부분적인 통증과 광범하게 퍼진 통증의 임상적인 특성

New Jersey 의과대학 정신과와 치과대학 구강 병리 및 생리학, 구강진단학 부교수인 Karen G. Raphael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안면근육통(MFP: myofacial pain)을 호소하는 병력이 있는 162명의 여자환자들을 상대로 안면 근육통의 임상적인 특성에 관하여 정신심리 분석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162명의 환자들 중에서 23.5%에 달하는 38명은 섬유병(FM: fibromyalgia)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MFP를 치료할 때에는 FM이거나 FM이 아니거나 모두 MFP와 비슷한 증세(sign)와 증상(symptom)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상담시에는 (최초 상담을 시작한 다음 7년 후) 평생동안 FM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FM 병력이 없는 환자들보다 MFP가 없다고 보고한 환자들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았다. 병력과 관련된 원인들을 다시 분석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FM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MFP의 증세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M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전진적으로 증세가 과급되었다고 했다. FM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안면근육통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능과 직업적인 기능장애가 있다고 하였으며 FM증세가 없는 환자들보다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MFP환자들과 FM을 의심하는 광범한 통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계속되면서 더 심하고 참을 수 없는 MFP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고, 심한 우울증과 전신으로 퍼지는 통증을 호소할 가능성이 통증이 없는 환자들보다 높다. (JADA 131: 161-171, 2000)

교두정상을 덮는 아말감 수복치료의 실패원인에 대한 실제조사 연구

Minnesota대학교 치과대학의 Randall J. McDaniel씨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실제조사를 통하여 706개의 cuspal-coverage amalgam 수복치료의 실패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검토 하였

다. 하악 제일대구치 수복물의 실패가 전체의 36.25%로 가장 많았고 실패의 원인은 치아 파괴(24.3%), 우식증(20%) 및 파괴된 수복물(17.1%)의 순서였다. 실패한 수복물의 대다수에 이르는 82.15%는 보존치료를 다시 해줄 수 있었으며, 9.35%는 수복이 가능하고 8.50%는 수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파괴된 수복물 중 80%는 보수가 가능하며 14.5%는 보수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되었고, 5.5%는 다시 보존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태였다. 우식증으로 인하여 실패한 경우는 84%가 복구가 가능했고 8%는 보존치료를 해줄 수 있었고 8%는 더 이상 보존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 통계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치아파괴의 원인은 우식증이나 보존물의 파괴보다 보존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치아조직의 파절이 보존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아의 교두를 덮는 아말감치료를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치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안이라고 McDaniel씨는 결론을 내렸다 (JADA 131:173-177, 2000).

치과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에 사용하는 항균제가 상아질 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

미 공군 항공의과대학의 Howard W. Roberts 씨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치과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세균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항균제(antimicrobial agents)가 치아 상아질 접착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 표면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약한 산성용액으로 부착할 표면을 부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산으로 부식시킨 표면을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줄기로 가능한 한 모두 닦아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용액에 여러 가지 항균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한 세척과정과 0.12% chlorhexidine gluconate와 12.0%의 ethyl

alcohol이 주성분인 Micrylium을 포함한 Bio 2000, Sodium Hypochlorite(3.0 ppm), ethyl alcohol, thymol, eucalyptol, methylsalicylate 및 menthol이 주성분인 Listerine (1:10 희석용액), 혹은 citric acid가 주성분인 BioClear(0.224%)를 사용하여 산으로 처리한 치아표면을 세척한 후 접착제를 광중합시키고, 그 접착강도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항균제가 함유된 용액으로 산처리 표면을 세척한 경우, 상아질 접착제의 접착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치과 치료실에서 상아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접착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처리한 치아표면을 세척할 경우 항균제가 포함되지 않은 증류수를 사용하면 상아질 접착제의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JAFDA 131:179-183, 2000)

구강안면 신경통에 사용하는 국소 도포제에 관한 문헌고찰

Los Angeles에 있는 California 대학교 치과대학의 Glenn T. Clark 교수는 Mariela Padilla씨와 Robert L. Merrill씨와 함께 신경질환 때문에 구강안면부위에 나타나는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소마취제의 이용과 nociceptor를 자극하여 Substance P와 여러 종류의 neurotransmitter를 유리시켜 통증을 조절하는 capsaicin의 사용에 대한 문헌고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제(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와 sympathomimetic agents, anticonvulsants 및 NMDA(N-methyl-D-aspartate) receptor antagonists에 대한 문헌고찰도 포함시켰다. NSAIDS로서 ketoprofen, diclofenac, aspirin 및 ibuprofen을 소개하였고, sympathomimetics 로는 clonidine을 소개하였다. NMDA 수용체의 차단제인 ketamine을 사용하면 안면 통증을 완화하는데 환각증세가 부작용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Anticonvulsant로는 Tetrodotoxin에 저항하는 PN3 sodium channel을 조절하는 약제가 효과적이라고 했다. 구강과 안면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제작된 국소도포용 통증완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신적으로 복용하는 약제보다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신경질환으로 인하여 구강안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세는 삼차신경통, 외상으로 인한 신경병, 삼차신경종양, 허피후에 나타나는 신경증세 (post herpetic neuralgia), 당뇨병과 관련된 신경질환, 압과 연관된 신경질환, AIDS와 관련된 신경병, 만성적으로 삼차신경의 이상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신경통으로 분류하여 신경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관리를 통한 구강안면통증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JADA, 131:184-195, 2000).

유치와 영구치에 발생한 전체 우식치의 변화추세

ADA의 건강정책 자료연구소의 L. Jackson Brown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지난 해 ADA 12월 호와 금년 1월 호에 발표한 치아우식증의 변화추세에 이어 마지막 연구결과로서 미국의 18세 이하 연령층에 발생한 치아우식증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하였다. 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미국 학동들의 영구치 우식경험지수(DMF index)는 NHANES I의 결과인 4.44에서 NHANES III의 결과인 1.90으로 57.2%가 감소되었다. 유치의 우식경험지수(df index)는 NHANES I의 2.29에서 NHANES II의 1.38로 39.7%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역학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미국 학동들의 치아우식증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므로 장래 개원 치과의사들은 치료해준 우식치에 재발된 우식증을 주로 치료하게 될 것이고 유치에 발생하는 우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Brown 박사는 예측하였다 (JADA, 131: 223-231, 2000).